

법헌 스님의
만다라&수행



5불4보살로 구성된 팔엽원

팔엽원 만다라는 5불 4보살로 구성된다. 중앙의 마하 바이로짜나, 동방의 보당여래, 남방의 개부화왕여래, 서방의 무량수여래, 천고뇌음여래 등 5불과 동남간의 보현보살, 남서간의 문수사리보살, 서북간의 관자재보살, 북동간의 미륵보살 등 4보살로 이루어져 있다.

팔엽원으로 자기 마음(自心)을 아는 수행법을 하면 효과적이다. 자심을 알려면 삼구심(三句心, 원인, 근, 구경)을 먼저 갖춰야 한다.

첫째, 보리심을 원인으로 자심을 알자. 보리심이란 깨달음을 성취하기 위해 반드시 지녀야 할 마음을 드러낸다. 동의어로는 실담범자로 아누다라삼약 삼보디 찌따라 하고, 한역으로는 무상정등각심(無上正等覺心)이라 한다. 둘째, 대비심을 근본으로 자심을 알자. 대비심은 불보살이 일체 중생의 고통을 구제하려는 마음을 내는 것을 말한다. 비(悲)를 까루나라 하는데 까(ka)는 고통이라는 뜻이며, 루나는 제거 한다는 의미이다. 그러므로 고통을 제거하는 것을 비심이라 한다. 방편심으로 구경을 이루게 됐을 때 자심(自心)을 알게 된다.

방편심은 반야바라밀다 즉 진실한 지혜와는 대칭되는 말이며, 방편의 지혜로서 평등하고 진실한 지혜에 의해 드러나는 다양한 차별을 관조하는 것을 말한다.

〈동방불교대학 실담학 교수〉



보리수아래의
부처님 품안에서
② 시각장애인 김동원 씨

삶 속 장애, 정도의 차이일 뿐



시낭송가 엄경숙(사진 왼쪽)씨의 도움으로 시낭송을 하고 있는 김동원 씨.

혹한에 폭설이 내리는 저녁, 시각장애인 동원 씨의 전화를 받았다. "천안에는 눈이 많이 오는데, 서울에도 눈이 많이 오느냐"는 안부전화다. 마침 회원들의 소식이 두루 궁금하던 차였기에, 더없이 반가운 목소리였다. 동원 씨는 서울의 한 시각장애인복지관에서 안마 창업반 공부를 하다 코로나19의 재확산으로 복지관이 문을 닫는 바람에 천안의 집에 내려가 있다고 했다. 대화를 나누던 중 "날이 추워지면 시야가 더욱 흐려져서 밖에 나가지 못하니, 김이 서리지 않는 스키안경을 개조해서라도 쓰고 다녀야겠다"며 농담처럼 덧붙인 말에 가슴이 짠해졌다.

불심 깊은 부모님 밑에서 자란 동원 씨는 늘 남을 먼저 배려하며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늘 솔선수범으로 행동하는 분이다. 장애회원들을 돕는 일에서도 마찬가지다. 장애인은 도움을 받는 사람으로 인식되는 사회지만, 장애인도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보면 장애인과 비장애인 구분없이 도울 일이 있으면 도와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곤 한다.

동원씨가 가장 좋아하는 경구는 〈금강경〉 사구게 중 '응무소주 이생기심(應無所住 而生其心)' 이다. 집착함이 없이 그 마음을 작용하라, 어느 것에도 마음이 머물지 않게 하여 그 마음을 일으키라는 가르침을 담고 있다. 동원씨의 삶을 곁에서 지켜보면 이 경구가 삶의 지침이 되고 있음을 자연히 알 수 있다.

동원 씨는 시야가 점점 좁아지는 진행형 시각장애인이다, 근래 들어 청각도 좋질 않아 보청기를 끼기 시작했다. 초등학교 3학년 겨울방학 때 뇌종양 수술을 받으면서 마비성 사시가 됐다고 한다. 어려운 환경에서도 인덕전문대 공업디자인과를 졸업하고 전공을 살려 4년제 대학에 편입해 공부를 시작했지만, 시력이 점점 안 좋아져서 공부를 포기 할 수밖에 없었다. 디자인은 시력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다시 고민 끝에 요리학원 다니면서 한식조리기능사 취득과 양식조리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했다. 이 과정에서 다시 뇌종양의 발병과 수술, 그리고 녹내장이 발생하여 다시 뇌종양 수술과 방사선 치료를 받았다. 힘든 시기인만큼 동원씨는 "부처님 품 안이 참 소중했다"고 말한다.

동원 씨는 방사선 치료 후유증으로 집에서 1년간 쉬다가 친구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일을 시작했지만, 녹내장으로 인해 시야가 더 좁아지고 시력도 급격히 나빠져서 식당일을 그만 두고 나서 바로 시각장애 판정을 받았다.

시각장애 판정을 받은 동원 씨는 "사람들은 시각장애인은 당연히 앞이 전혀 안 보이는 것으로 여긴다"면서 "전맹인 시각장애인 뿐만 아니라 저시력인 사람도 시각장애인의 범주에 들어감을 알고 배려를 해주어야 한다"고 강조를 했었다.

동원 씨는 시각장애인의 판정을 받을 즈음, 아는 분의 소개로 보리수아래와 인연을 맺었다. 동원 씨와 보리수아래의 인연이 깊어질수록, 마흔의 문턱에 선 그가 미래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하는 고민도 깊어졌다.

시각장애인들의 대표적 직업인 안마사에 생각이 이르러 맹학교 고등부과정에 들어가 점자도 배우고 안마를 배우면 어떻겠냐는 권유를 했다. 전문대 졸업 후 나름의 꿈을 갖고 편입해 다니던 4년제 대학을 포기한 동원 씨에게, 맹학교 입학을 권유하는 것이 상처가 되지 않을까 걱정이 되었지만 나의 말을 들은 동원 씨는 시각장애인연합회에 자신이 직접 문의해 2017년에 청주 맹학교에 입학했다. 이료재활전공과 1 · 2년 과정을 다니면서 방과 후 수업으로 바리스타 공부도 겸해 바리스타 2급 자격증을 취득했고, 2019년 졸업과 동시에 국가공인안마사 자격증을 취득했다. 지금은 서울노원시각장애인복지관 안마 창업반에서 발마사지, 근육학, 활법, 카이로프랙틱, 침법 등 심화과정을 이수하고 수료를 앞두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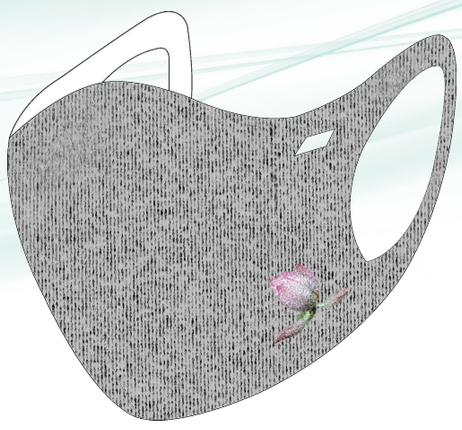
동원 씨가 학교를 다닌 지 1년 쯤 되었을 때에는 마침 조계종사회복지재단을 통해 〈육조단경〉 등 점자경전을 기증받아 동원 씨에게도 몇 권을 전했다. 그는 "점자 불교경전이 없어 학생들에게 주고 싶어도 못줬다"며 더 요청해 왔다.

사실 장애인 불자포교를 위해서는 사찰 편의시설을 갖추는 것도 필요하지만, 다양한 형태의 기반 지원도 중요하다. 사찰소개나 템플스테이 안내문, 기본불교의식집 등을 점자로 제작해 필요한 곳에 1권씩이라도 비치해 놓는다면 시각장애인 불자들에게 더없이 반가운 인연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본생담〉 〈백유경〉과 같이 재밌고 쉬운 경전이야기를 점자책으로 만들어 전국의 맹학교 도서관, 시각장애인점자도서관에 비치하는 방법도 모색해 볼 필요가 있다. 소량의 제작으로도 충분하다. 시각장애인들이 도서관에서 동화책처럼, 격언집처럼 읽는다면 자연스럽게 불교를 알게 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신체의 일부가 불편할 뿐이지 그 외엔 비장애인과 다를 게 없다"는 동원씨의 말은 곧 "착실히 수행하면 아나율과 주리반특처럼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는 말로 들린다. 스님께서 앞에서 이끌어주고 비장애불자들이 뒤에서 밀어준다면 이들의 신행생활은 어렵지 않을 것이다.

〈최명숙 보리수아래 대표〉

20회 세탁 후에도 90% 기능유지!
KOVI 기능성 비말차단 패션·구리마스크
FDA 등록



기능성 비말차단 패션마스크
(연꽃문양/4색)
●재 질 : 폴리에스테르 92%, 스판 8%
●색 상 : 연회색, 백색, 청색, 검정색
●판매가 : 4개 1셋트 15,000원 (개당 3,750원)
/ 3만원 이하 택배비 3,000원 별도
(제주·도서지역 택배비 6,000원)
●기능성 순수 국산원단 사용

100개	300개	500개	1,000개	2,000개
(개당) 2,500원	(개당) 2,400원	(개당) 2,300원	(개당) 2,200원	(개당) 2,000원



기능성 비말차단 구리마스크
(연꽃문양/진회색)
●재 질 : 폴리에스테르 81%, 구리 7%, 스판 12%
●색 상 : 진회색 (그외 색상 주문 가능)
●판매가 : 4개 1셋트 22,000원(개당 5,500원)
/ 3만원 이하 택배비 3,000원 별도
(제주·도서지역 택배비 6,000원)
●기능성 순수 국산원단 사용

100개	300개	500개	1,000개	2,000개
(개당) 3,500원	(개당) 3,400원	(개당) 3,300원	(개당) 3,200원	(개당) 3,000원

Deodorization 소취 · Antibacterial 항균 · Anti-Splash 비말차단 · UV Protection UV차단 · Fast Drying 빠른건조 · Reusable 재사용가능



※ 색상 및 디자인 변경가능하오며, 로고 및 사찰명 인쇄시 장당 300원 별도 추가됩니다.
※ 대량주문 및 전체디자인 변경 등은 별도 문의 바랍니다.
※ 입금계좌 :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문의 : 02)732-1520 www.mahamall.co.kr